

지역 소식통

고창군, 서해안철도 국가

계획 반영 서명 1만명 돌파

철도 오자(奥地) 고창군에 서해안철도를 놓아들리는 군민들의 열기가 한계를 추위를 녹일 만큼 뜨겁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작된 '서해안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이 일주일만에 서명 참여 인원 1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대회, 통합방위협의회, 무장성 애간경 관점등식 등 연말 열리는 고창군 행사와 모임에서도 서해안철도를 염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호남서해안 지역 5개 시·군(군산, 부안, 고창, 영광, 함평) 지역체장은 고정에 모여 '서해안철도 국가 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서해안철도 국가 철도망 반영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군민 건강증진

지역건강협의체 위촉식

부안군은 17일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안군 지역건강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건강협의체는 부안군 보건소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맡게 된다.

이날 협력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 부안중합사회복지관, 부안군지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5명의 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올해 개소한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과 2025년도에 진행될 라인업, 요가교실 등 5개 신규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보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간 건강 관련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 국가예산 5542억원 확보

부안군, 미래신산업·해양수산·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 대거 반영

부안군은 최근 국회 의결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국·도비) 5542억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며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에 못미치는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예결위 김액안으로 국가예산이 통과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 유입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주요 현안사업 예산들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미래신산업, 해양수산, 지역개발,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국·도비 예산확보가 이뤄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국가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부안 해뜰밸리스마운 조성사업 4억 5000만원(총사업비 356억원), 격포항~궁

항 해양탐방로 조성 1억 5000만원(총사업비 106억원), 위도면 진리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4억 8000만원(총사업비 59억원),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1억원(총사업비 3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기존에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수소도시 조성 40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4억원(총사업비 890억원), 끔소지구 풍수해생 활권 정비사업 30억원(총사업비 483억원), 격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4000만원(총사업비 399억원) 등이 반영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신규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종합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부처단계, 기재부단계에 맞춰 전북자

치도와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전방위적 설득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회단계에서는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허영 예결위 간사, 김윤덕·안도걸·유동수·윤준병·이기현·이춘석·진성준 의원 등과 소통하며 정치권과 원팀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권의현 부안군수는 "국·도비 예산 확보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성장동력이다"라며 "국회단계에서 증액요청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닝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망 개선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통

정읍시, 940m 왕복 4차선… 교통편의 증진·도시균형발전 기대

정읍시가 닝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망 개선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3호선) 사업으로 추진한 닝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18일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장차 완성될 시가지 내부 순환도로의 주요 노선으로 초산동 당현마을과 상평동 정을 트레이닝센터를 연결한다. 연장 940m, 왕복 4차선 규모로 설계됐으며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2021년 1월 착공해 올해 12월에 준공됐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초산동과 상평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고창군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4 지방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진한 외교 및 국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이 가운데 7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했다. 고창군은 '전지적 농민 시점 고창형 농촌살리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농업 인력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고창군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외에서 오는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



고, 지역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실제 고창군은 올해 우수구조 180여 명(131개 지자체 중 전국 3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해 농촌일손을 도왔다.

또한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의 지원사업으로 산재 보험료 미화급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사항의 옷 나눔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 전학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2025년 국가예산 3824억원 확보

올해 대비 8.3% 성장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대비 8.3%증가한 3824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은 67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증가했다. 반면 고창군 국가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속 김액안과 국회의 의견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사업의 국가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계속사업과 국책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올해 대비 9.5% 상승했다.

근로자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신활력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410억원)을 비롯해 △유아친화형 국립체육센터 건립사업(98억원) △왕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89억원) △각별 도요풀 폐사 보금자리 조성사업(50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24억원) △세계유산 축전(22억원) △자전거 모범 도시 조성사업(15억원) 등 신규사업

을 포함한 국비 전체예산액을 확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산정 기준을 바꿨다. 이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준 투자사업 위주 방식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2001억원으로 올해 대비 9.5% 상승했다.

근로자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신활력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410억원)을 비롯해 △유아친화형 국립체육센터 건립사업(98억원) △왕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89억원) △각별 도요풀 폐사 보금자리 조성사업(50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24억원) △세계유산 축전(22억원) △자전거 모범 도시 조성사업(15억원) 등 신규사업

44건이 반영됐다.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심덕섭 군수와 국회 예결소 위원 위원인 윤준병 국회의원과 끈끈한 협조체계가 빛난 성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삶에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의 문을 두드린 결과"라면서도 "국가위기 상황에서 종액성이가 이뤄지지 않아 주요 현안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카누슬로우 램 경기장 조성 등 고창군 현안사업이 내년 초 정부주경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 민생회복지원금, 강력한 예산 절감 노력 있었다’

정읍시가 최근 발표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화제다. 어떻게 300억이 넘는 큰 재원을 마련했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강력한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다.

총 310억원의 재원은 기존의 지방세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원 예비비 50억원 추경 삭감분 30억원 등 다양하고 강력한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 마련됐다.

더불어 박일 시의장 등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힘이 됐다. 시의회는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12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